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목적 외에 작가와 동두천문화원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1년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금송굴
수상내역	2011년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작가	황장섭
이야기 소재 (Motive)	<p>금송굴 - 소요산 자재암에서 남쪽 의상대 쪽으로 오르다 보면 7부 능선 정도에 천연동굴이 있는데 바로 이 동굴이 금송굴이다. 굴의 깊이는 10m, 폭은 5.6m 정도로 장정 30~40명들이 들어가 쉴 수 있을정도의 공간이며 굴 안에 1평 반 가량되는 공간은 방갈이 꾸며져 있다.</p> <p>경주 김씨 이판공파와 여산 송씨세보를 보면 금송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 <p>‘김상촌의 7세손 김륙의 가솔과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송질의 6세손 송명업이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난을 피했다.’고 적고 있다. 그 후부터 이 굴을 김씨와 송씨가 피난한 굴이란 뜻으로 금송굴이라 전하고있다. 지금 이 굴에는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등산객들의 휴식장소로 사용되고 있다.</p>
스토리 구성 (Plot)	<p>소요산은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풍경이 빼어나며, 그에 걸맞은 이야기들이 많다. 특히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절한 사랑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금송굴은 난을 피해온 두 집안의 성씨(김씨,송씨)에서 유래하여 감성적인 면이 부족하다. 스토리텔링의 제1의 목적은 감성유발이기 때문이다. 하여, 금송굴에 러브스토리를 가미하여 스토리텔링 하였다.</p>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금농굴

황 장 섭



인물 캐릭터

김판서 (40대) 동인계열에 속하는 이조판서. 세상을 뒤엎을 계획을 진행 중인 사람이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다. 해서, 본처를 소박하였지만 어느 날 자신에게 씨가 없는 것이 원인임을 알고 씨내리를 해서라도 대를 잇기 위해 몰락한 양반가의 딸인 정연희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여 정연희의 혼전 정인인 김진국을 시켜 딸 김송이를 얻는다. 그러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처형당한다.

정 연희 (20)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 김진국이라는 소리꾼과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병든 홀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 김판서에게 시집간다. 수일이 지난 어느 날 김판서가 자신은 씨가 없다고 고백하며 씨내리를 받아들이라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해서 강력하게 거부하였지만 그 씨내리의 대상이 사형직전의 위기에 처한 혼전 연인인 김진국이라는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임신이 되면 김진국을 살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씨내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후 딸 김송이를 낳고 김판서의 강요에 의해 자결한다.

김 진국 (30대) 판소리의 달인. 정연희를 김판서에게 빼앗기고 그 울분으로 주막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만다. 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는데 김판서가 제안한다. “너의 여자였던 ‘연희’에게 씨를 내리라.” 수일을 정연희와 같이 보내고 임신이 되었지만 김판서는 약속을 저버리고 관아에 처형을 집행하라고 한다. 형장으로 끌려가던 중에 탈출하여 소요산 동굴에 숨어산다.

김 송이 (주인공, 20)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채 김판서의 딸로 살다가 한양 제일의 부자인 송진사의 7대 독자 송민과 사랑에 빠진다. 혼담이 오가던 중에 김판서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효수당하고, 자신은 노비가 되어 지방 관아로 이송되는 중에 한 자객으로 인해 탈출하게 된다. 그 자객은 바로 자신의 생부인 김진국이다. 그러나 탈출 중에 사고를 당하여 기억을 모두 잃는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 송민이 들려주던 대금의 음률뿐이다. 김진국을 따라 소요산 동굴에 숨어살며 판소리를 배우고 기방에 출입하며 소리기생 해월이 되어 세상에 이름이 높다.

송진사 (60대) 권력을 탐하는 돈 많은 양반. 아들 송민의 연인인 김송이가 권세가인 김판서의 딸임을 알고 기뻐한다. 그러던 중 기묘사화가 발생하여 김판서가 처형되고, 혼담이 오간 자신의 집안에도 화가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집사인 이서방을 죽여 방화하여 아들인 것처럼 꾸민다. 곧이어 의금부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부인과 함께 자결한다.

송 민 (주인공, 20대) 송진사의 아들로 7대 독자. 사랑하는 김송이의 아버지 김판서가 처형 된 후 아버지에게 의해 목숨을 구하고 한양을 떠나 전국을 유람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 안에 이름 높은 기생 ‘해월’의 소문을 듣고 동두천으로 향한다.

박 일도 (30대) 죄인들을 쫓는 추격꾼.

처형장으로 가던 중 도망친 김진국과 호송도중에 도망간 김송이의 목에 걸린 상금을 노리며 이들의 행방을 쫓는다. 도중에 또 다른 도망자와 싸우던 중 몸을 다치는데, 마침 지나가던 송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수일을 같이 지내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눈다. 후에 김진국과 김송이를 찾아내고 칼을 겨눈다.

시놉시스

테마스토리 발굴배경 및 의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은 수도권 최고의 명산으로 예로부터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뜻한 설화와 관련된 요석공주 별궁지, 자재암, 원효대, 원효폭포, 원효정약수와 이태조 행궁지 등 많은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있다. 작가는 그 중에서 금송굴에 대하여 전해 내려오는 - 임진왜란 때 김씨와 송씨가 피난하였다는 -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스토리텔링 하였다.

스토리관련 기초정보

금송굴 - 소요산 자재암에서 남쪽 의상대 쪽으로 오르다 보면 7부 능선 정도에 천연동굴이 있는데 바로 이 동굴이 금송굴이다. 굴의 깊이는 10m, 폭은 5.6m 정도로 장정 30~40명들이 들어가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며 굴 안에 1평 반 가량되는 공간은 방같이 꾸며져 있다. 경주 김씨 이판공파와 여산 송씨 세보를 보면 금송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상촌의 7세손 김륙의 가솔과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송질의 6세손 송명업이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난을 피했다.’고 적고 있다. 그 후부터 이 굴을 김씨와 송씨가 피난한 굴이란 뜻으로 금송굴이라 전하고 있다. 지금 이 굴에는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등산객들의 휴식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스토리보드의 매력 포인트

소요산은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풍경이 빼어나며, 그에 걸맞은 이야기들이 많다. 특히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뜻한 사랑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금송굴은 난을 피해온 두 집안의 성씨(김씨, 송씨)에서 유래하여 감성적인 면이 부족하다. 스토리텔링의 제1의 목적은 감성유발이기 때문이다. 하여, 금송굴에 러브스토리를 가미하여 스토리텔링 하였다.

국내외 유사사례 소개 및 차별성

스토리에 굴이 등장하는 문화원형을 살펴보면, 충남공주 곰굴과 경북봉화 청량산의 김생굴 유래가 비교적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화적인 요소가 많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생산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다. 반면 금송굴의 경우 스토리의 내용에 판소리를 접목시켜 스토리텔링 하였기에 영화 또는 연극 등의 문화콘텐츠로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테마스토리 돌거리 구성 (사건전개)

1569년 선조 2년.

한양 남산의 어느 사찰 대웅전에 수수한 옷차림의 여인이 백팔 배를 올리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스물 남짓의 ‘정연희’이며 몰락한 양반가의 무남독녀이다. 병중이신 노모의 완쾌를 빌고 있는데 열려진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20대의 사내가 있으니, 알려지지 않은 판소리 명창 ‘김진국’이다. ‘김진국’은 과거에 승려였으나 판소리에 매료되어 파계하여 전국을 떠돌며 소리를 익히다 노스님의 병환이 깊다는 소식을 듣고 들린 것이다. 첫눈에 연정을 느낀 두 사람은 급격하게 사랑에 빠져들지만 ‘김진국’은 가난한 ‘정연희’의 집안에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여 안타까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연희의 집에 이조판서인 김판서가 보낸 매파가 날아든다.

“김판서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인을 소박 놓아 내 쳄으니, 아들만 낳으면 정실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요.” 하니, 이에 정연희는 병든 노모와 집안을 살리기 위해 김판서와 혼인을 하고, 김진국은 지켜만 봐야 하는 울분에 주막에서 양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데, 그만 양반이 죽고 만다. 살인죄로 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는 김진국.

한편, 정연희와 혼인한 김판서는 초야를 만취하여 그냥 보낸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곁에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의원 말에 의하면 내 몸에는 씨가 나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내가 부실한 것도 모르고 본처를 소박 맞추었소. 그러나 대는 이어야 하기에 씨내리를 들일 것이니, 따라주시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정연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거부하니, 김판서는 살인죄로 옥에 갇혀있는 김진국의 소식을 전해주며 내 뜻을 따르면 목숨을 살려주고, 처가에 큰 재물을 내릴 것이라고 회유하니 따를 수밖에 없다.

씨내리를 맞는 날 밤. 다시 재회한 두 사람은 서러운 운명에 눈물을 떨군다.

수일을 함께 지낸 두 사람.

김진국은 정연희가 임신하면 자신이 죽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연희 또한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역시 내색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 날것이라는 것을 김진국은 모르기 때문이다. 보름 남짓 그들의 아픈 사랑이 흘러가고, 정연희가 임신하자 김진국은 딸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름을 송이라 지으라 한다.

임신이 확인되자 김진국은 다시 옥사에 갇히고, 이내 사형을 언도받는다. 목숨을 구해주겠다는 김판서의 제안은 술수였던 것이다. 김진국은 사형 집행 날 형장으로 이송 되던 중 탈출을 감행한다. 태어날 자

신의 아이가 보고 싶은 열망 때문이다. 죄인이 도망가자 한양 곳곳에 방이 붙고, 김진국은 김판서의 집 주변을 돌며 정연희의 동태를 살핀다.

열 달 후, 정연희가 딸을 낳자 조판서는 안방에 들어 칼을 두고 나온다. 아이는 잘 키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정연희는 딸에게 젖도 한번 물리지 못하고 자결하여 생을 마감한다. 정연희의 무덤을 찾은 김진국은 오열하는데, 뒤이어 포졸들이 들이 닥치자 소요산으로 도망가 숨어 지낸다.

20 년 후.(1589년 선조 22년)

김판서의 딸 김송이는 혼기 찬 스무 살의 처녀가 되었다. 김송이는 자라면서 가무에 소질을 보이니, 이 모습을 지켜보는 조 판서는 소리꾼인 김진국의 재주를 물려받은 것 같아 씩씩하다. 그리고 근자에 들어 딸이 한양의 재력가인 송진사의 아들 송민을 만나고 다닌다는 풍문이 있어 지켜보고 있다. 김판서는 송진사의 재물을 이용하여 뭔가 일을 꾸며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벼슬을 잃고 낙향한 동인세력과 공모하여 천하를 뒤집어 보려는 것이다.

김송이가 사랑하는 송민은 흰칠한 외모에 여러 악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내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송진사는 권력을 탐하나 마땅한 줄이 없던 차에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김판서의 외동딸임을 알고 기뻐한다. 김판서를 발판으로 자신과 아들의 출세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니 말이다.

김판서와 송진사의 속내를 모르는 두 사람은 점점 사랑에 빠져들고 깊어간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에 비극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기묘사화이다.

기묘사화로 인해 김판서는 처형되고, 집안의 가솔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김송이는 관노가 되어 지방 관아로 이송중이다. 또한 김판서와 혼담이 오갔다는 명분으로 송진사의 집안도 몰락하였는데 아들 송민은 다행히 목숨을 건져 도망을 간다. 송진사가 집안의 마름인 이서방을 살해하고 아들인 것처럼 꾸밈기에 화를 면한 것이다. 이후 송민은 거지 물골로 전국을 유람하며 세월을 보낸다.

한편 동두천에서 기묘사화를 알게 된 김진국은 급히 한양으로 가서 자신의 딸인 김송이를 수소문하여 지방 관아로 이송중임을 알고 자객으로 변장하여 딸 송이를 구해낸다. 그러나 포졸들의 추격으로 딸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자 간신히 구하였지만 딸은 기억을 잃고 만다. 다만 연인인 송민이 연주해주던 대금 음률만 흥얼거릴 뿐이다. 김진국은 딸과 함께 소요산으로 돌아온다.

한편 길거리에 포상금이 걸린 송민과 복면을 한 김진국의 얼굴이 벽보에 붙는데, 한 사내가 유심히 쳐다본다. 바로 죄인들의 목에 걸린 포상금을 노리는 추격꾼 박일도이다.

3년 후.(1592 선조 25)

전국을 유람하다 거지 몰골이 된 송민이 산길을 걷다가 쓰러진 한 사내를 발견한다. 바로 추격꾼 박일도이다. 몸에 칼을 맞아 피를 흘리는 박일도를 구해 치료를 해준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보내며 사랑에 관한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박일도가 추격꾼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는다. 박일도가 건강을 회복해 갈 무렵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난다.

동두천에 도착한 송민은 정자에서 술판을 벌이는 선비들에게 다가가 대금 한 곡조 붙여주고 술을 얻어 마시고, 장안에 이름 높은 소리기생 해월을 찾아 매향각으로 향한다. 그러나 남루한 모습이라 문전박대 당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송민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송이가 어떤 노인과 함께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에 송민은 두 사람을 지나치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던만 김송이의 반응이 없다. 분명 자신을 잊었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 두 사람을 미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자꾸만 산중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동굴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동굴이 보이는 숲에 숨어 동태를 살피고 있다. 도대체 왜 자신을 몰라볼까? 고개 갯웃하며.....

해월.

해월은 김송이의 기생이름이다. 친부인 김진국은 기억을 잃은 김송이에게 3년 동안 판소리를 가르쳤다. 멍하니 있는 딸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노래이기에 말이다. 딸은 자신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판소리의 이치를 터득하며 나날이 발전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송이’가 세상에 나가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하여 기방을 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발을 쳐놓고 노래만 부르는 기생이 되었는데, 나라 안에 최고로 꼽힐 만큼 명창이었다. 그 소문이 전국에 퍼져 나가니 ‘해월’의 노래를 듣고 싶은 사대부들이 줄을 이었는데, 얼굴을 들어내지 않으니 ‘노래를 좋아하는 대가 집 규수’라느니, 또는 ‘얼굴이 흉악하여 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소문들이 돌아 이름이 더 유명세를 탔다.

한편, 김진국은 동굴 앞까지 미행해온 송민의 존재를 눈치 채고, 밤이 깊어 송민이 숲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제압한다. 행색을 살펴보니 흥한 자는 아닌 것 같아 날이 밝으면 떠나라 이르고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 송민은 해월이라는 기생에 대해 물어보려 하였지만 말이다.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대금을 꺼내어 예전에 들려주었던 음률을 연주해보는데.....

굴 밖에서 들려오는 대금 소리를 들은 김송이가 그 음률을 따라 흥얼거리더니 이내 머리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더니 혼절하고 만다. 이상한 느낌이 들은 김진국이 송민을 불러들여 대금의 음률과 이야기를 나누다 송진사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김송이는 모든 기억을 되찾고.....

며칠 후.

두 사람이 산속 계곡에서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김진국은 동굴 밖 양지바른 곳에서 북을 고치

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내가 칼을 겨눈다. 바로 추격꾼 박일도이다. 박일도는 김진국을 제압하고, 계곡으로 가 두 사람에게 칼을 겨누다가 깜짝 놀란다. 바로 자신을 구해준 송민이기 때문이다. 박일도는 급히 칼을 숨기니, 송민은 눈짓으로 ‘이 노래가 끝날 때 까지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말한다. 박일도의 정체를 모르는 송이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잠시 후, 노래 소리 끊어지자 박일도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지요. 사랑이라 말하니 사랑이더라! 라고요. 나도 이제 그리 해야겠습니다.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박일도는 미소를 짓더니 돌아서 가고, 두 사람의 노래 소리가 다시 이어진다.

금송굴

#1. 산모퉁이 길 (충청도 인근, 낮)

산모퉁이로 난 길가에 등 굽은 마른 억새가 가을바람에 흔들린다.
포승줄에 묶인 여인네 십여 명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데, 다리를 절뚝거리고 지친 표정들이 역력하다.
무리 중에 이목구비 또렷하게 생긴 김송이(20세)의 모습이 보인다.
깎때기를 머리에 쓰고 까치두루마기를 입은 포졸이 육모방망이를 만지며 하늘을 바라보니 해가 기울어가고 있다.

포졸1 : (죄수들 보며) 서둘러라!

포졸2 : (포졸1보며) 여자팔자 뒤웅박팔자라더니 그 말이 딱이구먼.

포졸1 : 그러게 말일세. 마님, 아씨 소리 듣다가 관노비로 끌려갈 줄 어찌 알았겠는가. (송이가 리키며)김판서 무남독녀라던데.....

포졸2 : 쫓쫓! 반반하니 수령들 손 타게 생겼구먼.

#2. 숲속 (오후)

숲이 우거진 곳을 지나는 이들.
갑자기 복면 한 자객이 나타나 칼을 휘두르니 포졸 몇이 쓰러지고, 압송되어 가던 여인들은 놀란 눈을 하는데, 자객이 송이를 끌고 도망간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에 우왕좌왕하던 포졸들이 정신을 차리고 추격한다.
자객은 송이를 데리고 결사적으로 도망가고, 송이는 의아해 하면서도 이끌려간다.
잠시 후, 절벽근처에서 뒤 쫓는 포졸에게 화살 맞은 송이가 폭포로 떨어지니,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아래로 몸을 던지는 자객.
포졸들이 절벽위에서 아래를 살피다 우회하는 길을 찾았는지 아래로 향한다.

#3. 폭포 (낮)

물속에 가라앉은 송이를 구하여 안고 나오는 자객의 복면이 벗겨지니, 얼굴에 더부룩한 수염이 가득한 김진국 (40대)이다.

어깨에 피가 흥건한 송이를 업고 산길을 헤쳐 나가는 진국.

#4. 한양거리 (낮)

복면한 진국과 송이의 얼굴이 길거리에 붙어있는데, 협객차림의 박일도(30대)가 유심히 살펴본다.
(시간경과)

#5. 소요산 일원 (낮)

단풍이 곱게 물든 소요산을 오르는 송이와 진국이 잠시 멈춰 풍경을 살핀다.

송이 : 온산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진국 : 소요산이니라.

송이 : 소요산?

진국 : 경기도의 소금강으로 불릴 정도로 절경이 많은 곳이지.

송이 : (고개 끄덕).....

진국 : 자, 출발하자꾸나.

#6. 동굴 (소요산, 낮)

굴속에 방이 꾸며져 있고, 장구, 북, 거문고 등의 악기들이 놓여있는데, 진국과 송이가 동굴로 들어선다.

송이 : (주변 살피더니) 방 같습니다?

진국 : (고개 끄덕) 내가 사는 곳이니라. 예서 지내다 보면 네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송이 : (북을 만져보며) 소리꾼이십니까?

진국 : 그냥 가지고 노느니라.

송이 : (북을 잠시 만져보더니) 현대 뭐라 불러야할지?

진국 : 소리선생 이라하면 어떠냐? 너는 송이라 하고.....

송이 : (잠시 생각더니 고개 끄덕이며 혼잣말)송 이, 송 이.(고개 가웃) 현대 어찌 이 산중 굴속에?

진국 : 여기 들어 온지도 강산이 두 번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자막 : 20년 전.

#7. 회상 / 사찰 (한양 남산, 낮)

대웅전에서 백팔 배를 올리고 있는 여인(정연희, 20세) 수수한 모습이지만 자태가 곱고 단정하다. 구슬 땀이 흘러내린다.

열려진 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진국(20대). 흰칠한 키에 이목구비 뚜렷하다.

#8. 회상 / 승방 (낮)

승방에 누워있는 노승이 기침하며 일어나 밖을 보니 진국이 있다.

손 뻗어 목침 잡아 던지고, 진국은 피한다.

스님 : 통기 넣은 지 언제데?

진국 : 기력을 보니 아직 생생하신가 봅니다? 하하하.

스님 : 무심한 놈 같으니.....

진국 : (방에 들어 절 올리고 앉으며) 현대 (밖 보며)?

스님 : 허드렛일 하는 남자니라. 노모의 병이 깊어 불공을.....

진국 : 모습이 곱던데?

스님 : 소리에 미쳐 파계하더니 이제 계집까지 눈에 들어오느냐?

진국 : 하하하. 뚫린 눈이라!

스님 : 소리는 끝을 보았느냐?

진국 : 세상만사 끝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스님 : 이놈이 제법 도 터진 소리를 하는구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안에 가득한데, 연희가 내려가겠다고 고한다.

진국이 밖을 나가니 연희가 합장을 하고 간다.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이 온화하다.

(다음 날)

#9. 회상 / 계곡 (낮)

사찰 인근 계곡 느린 바위에 앉아 북치며 춘향가 판소리하는 진국.

노래를 하는 중에 옆을 보자 연희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얼떨결에 합장하고,

연희 : 소리에 끌려 저도 모르게.....

진국 : 아, 예. (머리 굽적이며)

연희 : 먼 곳에서 소리꾼 한분이 오실 거라 하시더니.....

진국 : (머쓱한 표정)..... 남자도 한번 해 보겠소?

연희 : 저, 저도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진국 : (야릇한 미소 짓더니) 그 그림 입을 한번 벌려보시오.

연희 : (고개 가웃).....

진국 : (진지한 표정으로 아~ 하는 입모양).....

연희가 의심스러운 듯 고개 갇웃하며 별린다.

진국 : 더 크게. 아~~~~

입을 크게 벌리자 진지하게 살펴보는 진국.

아~ 하며 그만 다물어도 되겠냐는 표정을 짓는 연희.

진국 : 합격입니다.

연희 : (의심스런 표정) 혹, 저를 놀리신 건지?

진국 : 손사래 치며) 아, 아닙니다. 날벼락 맞을 말씀.....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와 진국의 머리에 맞는다.

진국 : 아얏!

웬 놈이야! 하는 표정으로 고개 돌려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님이 손을 털며,

스님 : 날벼락이다. 이놈아! 하하하.

(시간경과)

진국에게 판소리를 배우는 연희의 모습이 흘러가는데, 연희를 바라보는 진국의 눈빛은 사랑이 가득하다. 승방에 누워 연희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진국. 사랑에 빠진 표정이다.

(며칠 후)

#10. 회상 / 사찰 (낮)

49재상이 차려진 법당에서 절 올린 김판서(40대, 이조판서)가 스님 앞에 서니,

스님 : 극락왕생 하실 것입니다. 콜록 콜록.

김판서 : 의원이라도 올려 보낼까요?

스님 : (고개 갇) 순리에 따라야지요.

김판서 : 순리라.....!

스님 : 그렇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은 김판서가 시종과 산길을 내려가니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본다.

#11. 회상 / 계곡 (낮)

김판서와 시종이 계곡 근처에 다다르자 진국의 북소리와 함께 연희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좀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는 김판서. 진국과 눈이 마주치자 김판서는 헛기

침하며 다시 내려가고,

#12. 회상 / 주막 방 (저녁)

의원으로 보이는 40대의 사내가 김판서의 맥을 짚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김판서 : 말하시게.

의원 : (안절부절못하며) 송구하오나

#13. 회상 / 승방 (저녁)

스님의 등을 주무르고 있는 진국.

진국 : 낮에 오신 분은?

스님 : 이조판서니라.

진국 : 아! 49재중인 분의 자제?

스님 : 그랬느니라.

스님 : 연희는 어떠냐?

진국 : 재능이 일취월장하여 가르치는 재미가.....

스님 : 데끼 이놈. 니 속을 모르는 줄 아느냐?

진국 : (속마음 들킨 듯 껌연쩍은 표정).....

스님 : 애초에 네놈은 중질할 팔자가 아니었다.

..... 나 죽거든 여기 정리하고, 연희 데리고 떠나거라.

네놈 총각귀신 면해 줄려고 부른 것이니라.

진국 :돌아가시다니, 무슨 그런 말씀을.....

스님 : (콜록이며 기침 하더니) 세상만사 다 때가 있느니라. 때가.

(며칠 후)

#14. 회상 / 계곡 (낮)

연희가 소리를 하다가 진국이 북을 멈추자 고개 갯바위하며,

연희 : 틀린 곳이라도?

진국 : 아, 아닙니다. (껌연쩍어하며) 잠시 쉬시지요.

연희 : (자리에 앉아 눈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고개 숙인다).

진국 : (대단하다는 듯) 재능이 뛰어나십니다.
 연희 : 가르침 덕분에..... (진국을 뵈히 쳐다보는 연희).....
 진국 : (머쓱해 하는 표정).....
 연희 : (멈칫하며) 저, 저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진국 : (터듬거리며) 가, 가진 것 없는 소리꾼이라.....
 연희 : 겉치레 따지는 사람은 허울에 빠진 자들이나 진배없습니다.
 진국 : (사랑스런 미소를 짓는다.).....

#15. 회상 / 김판서의 사랑채 (밤)

김판서가 침통한 표정으로 술상에 앉아 혼잣말을 한다.
 김판서 : 씨가 없다! 씨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술상을 엎어버린다. 울분을 참는 표정. 이때 수하가 들어와 방안 분위기를 살피며 주눅터린다.
 김판서 : (시킨 일은 어찌 되었느냐는 표정)
 의원이 산길에서 칼 맞아 죽는 모습보이고,
 수 하 : 이러신 데로.....
 수하가 나가려하자 불러 세운다.
 김판서 : 그 여인을 알아보라.
 수 하 : (생각난다는 표정) 아, 예. 나으리.

#16. 회상 / 연희의 집 (밤)

초가집 안방에 누워있는 50대의 노모의 병색이 깊어 보인다. 간호중인 연희.
 노모 : 나 때문에 고생이.....(눈물짓는다)
 연희 : 그런 말씀 마세요.
 노모 : 있는 집 같으면 호강하련만. 혼기도 찾는데.....

(시간경과)

달빛이 문에 비치고, 연희는 몸을 뒤척이며 진국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러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짓는 연희.

(다음날)

#17. 회상 / 김판서의 집 사랑채 (밤)

수하가 김판서에게 연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김판서 : 그놈과는?

수 하 : 연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판서 : 연분이라.....

김판서는 눈을 감고 연희의 노래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다음날)

#18. 회상 / 연희의 집 안방 (낮)

연희 모녀가 앉아있고, 김판서가 보낸 매파가 눈치 살피더니,

매파 :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부인이 소박을 맞았으니, 아들만 하나 낳아주면 정실부인이
된다니깐요.

노모 : (단호한) 아니 될 말이네.

매파 : 이려고 살며 무남독녀 고생시키느니.....

노모 : 딸자식 팔아 호강할 생각 없네. 물러가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는 연희.

노모가 완강히 거부하자 매파는 물러나며 연희에게 눈짓을 한다.

#19. 회상 / 마당 (낮)

매파는 연희가 다가오자 주위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고,

매파 : 청상과부로 고생만한 홀어미 약도 한번 못써보고 돌아가시게 할 께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이 집안이 필 텐데.....

연희 : (고민하는 표정).....

매파 : 병세가 깊어 보이던데 이대로 보내면 평생 한 될꺼유. 한!

연희 : (고민하더니)..... 잠시만 말미를.....

대문간을 나서는 매파의 뒷모습을 보며 고민하는 표정.

진국의 모습이 떠오르니 고개를 흔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다음날)

#20. 회상 / 계곡 (낮)

너른 바위 위에 북과 북채가 놓여있고, 진국과 연희가 마주서서 바라보고 있다.

연희 : 해서, 이제 뵈올 수 없을 것 같..... 흑흑흑.

진국 : (고통스러운 표정).....

연희 : (눈물 주르륵).....

연희가 돌아서서 가려하자 북을 건넨다.

사라져가는 연희의 모습을 바라보는 진국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 떨군다.

멀리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김판서의 수하.

(며칠 후)

#21. 회상 / 김판서집의 안방. (저녁)

연지곤지 짙은 연희가 술상 앞에 앉아있고, 김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거푸 술잔을 들이킨다.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연희.

잠시 후,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김판서는 깊이 잠들어 있고, 예복차림의 연희는 굳은 듯 앉아 있다.

#22. 회상 / 주막 (저녁)

주막에서 술을 병째 마시는 진국.

술이 떨어지자 비틀거리며 일어나는데 이제껏 아니꼬운 표정으로 바라보던 양반행색의 노인이 혀를 차며 말한다.

양반 : 보아하니 천한 놈 같은데 웬 주정이냐? 썩 물러가거라.

진국 : (비틀거리다 양반을 노려보다니).....왜요? 천한 놈은 술도 못 마신답니까? 꺼억~

양반 :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네 이놈!

진국 : (히죽히죽 웃는다).....

양반 : (뺨을 때리고) 이놈이 양반을 능멸하느냐?

진국 : (뺨을 만지며 여전히 히죽히죽).....

양반이 다시 진국의 뺨을 때리고 옥신각신 하다가 양반이 평상에서 떨어져 쓰러지며 땀물에 머리를 찼고 숨진다.

주막손님 : 사, 사람이 죽었다. 저, 저놈이 죽었어. 저놈이!

#23. 회상 / 관아 옥사 (밤)

포박당한 채 옥사에 갇혀있는 진국. 옥사 앞에 있던 포졸이 혀를 차며 말한다.

포졸 : (혀를 차며) 천한 놈이 양반을 죽였으니 네놈 앞날이.....

(며칠 후)

#24. 회상 / 김판서집 안방 (밤)

눈을 지그시 감은 김판서가 앉아있고, 그 앞에 연희가 있다.

연희 : 사흘이 지났으나 한 번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김판서 : 실은, 자손을 보지 못하는 몸이오. 씨가 없다는 말이오.

연희 : (고개 갸웃) 그럼 어찌 저와 혼인을.....

김판서 : 씨내리를 들일 것이오.

연희 : (놀란 표정) 싫, 싫사옵니다.

김판서 : 음. 부인의 소리선생 이었던 김진국라는 자가 만취하여 사람을 죽였소. 그것도 양반을.....

연희 : (깜짝 놀란다).....

김판서 : 내일 효수될 것인데..... 뜻을 따르다면 손을 써보겠소.

연희 : (안타까운 표정 짓더니 눈물 떨어다.).....

(다음 날)

#25. 회상 / 안방 (밤)

연희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한 사내가 들어와 문 앞에 선다.

힘없이 고개를 든 연희의 눈이 갑자기 커진다. 눈앞에 진국이 서있기 때문이다.

연희 : (깜짝 놀란 표정).....

진국 : (와락 달려들어 품에 안는다).....

(시간경과)

연희 : (품에서 나와) 정말 방면시켜 준대 하였습니까?

진국 : 그, 그렇습니다. (애써 그렇다는 표정)

연희 : (안도의 한숨을 쉰다).....

(시간경과)

새벽닭 소리가 들리고 서로 어색해하며 바라보다 연희가 진국에게 다가앉으며,

연희 : 보, 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포옹 후 입을 맞추고 방의 불이 꺼진다. 불 끄진 방을 바라보는 김판서의 얼굴은 울분이 가득하다.

#26. 회상 / 안방 (아침)

연희가 눈을 뜨니 진국의 품안이다.

고개를 들어보니 진국이 사랑스런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27. 회상 / 사랑채 (아침)

술로 밤을 지 낸 듯 술상이 어지럽다.

침통한 표정으로 다시 술을 따르다 병을 집어 던진다. 울분을 삭이는 표정이다.

자막 : 보름 후.

#28. 회상 / 안방 (밤)

연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의원의 진맥을 받는 모습.

#29. 회상 / 사랑채 (밤)

김판서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곁에 수하가 있다.

멀찌기에 진국이 앉아있는데 의원이 들어와 앉는다.

의원 : 태가가 잡히웁니다.

김판서가 손짓하자 의원 물러가고,

김판서 : (진국보며) 며칠 옥사에 있으면 방면 될 것이니라.

수하가 진국에게 나가자며 신호를 보내니,

진국 : (다급한 목소리) 나, 나으리? 하, 하루만 시간을.....

물끄러미 진국을 바라보는 김판서. 애절한 진국의 표정.

#30. 회상 / 안방 (밤)

안타까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연희 : 이제 날이 새면 영영 못 뵈는 것입니까?

진국 : (침통한 표정).....

연희 : (배를 쓸며 눈물 주르륵).....

진국 : (연희를 끌어안으며) 그래도 우리의 아이가 남을 것이니.....

두 사람의 볼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새벽녘이 되어 진국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가려하자 다급히,

연희 : 아이 이름을?

진국 : 딸이면 ‘송이’라 하시오.

연희는 문을 나서려는 진국의 등 뒤에서 끌어안고 울먹인다.

연희 : 사랑하웁니다. 진정.....

#31. 회상 / 마당 (새벽)

마당에는 수하가 기다리고 있다.

안채의 문을 나서는 진국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연희.

#32. 회상 / 사또 집무실 (아침)

사또가 의자에 앉아있고, 김판서의 수하가 들어간다.

수하 : 집행을 서두르라 하셨습니다.

사또 : (고개 끄덕).....

#33. 회상 / 김판서집 안방 (낮)

김판서가 앉아있고, 연희는 울먹이는 표정.

김판서 : 방면하여 먼 곳으로 보냈으니 아이를 잘 보존하시오.

(시간경과)

#34. 회상 / 사형집행장 (낮)

포승줄에 묶인 진국이 포졸들에 의해서 끌려간다.
진국의 시야에 멀리 처형장이 보인다. 눈앞에 떠오르는 연희의 모습.
진국은 손에 쥔 사금파리로 포승줄을 끊기 시작한다.
잠시 후 형장에 다다랐을 무렵에 줄을 끊고 도망치는 진국.
포졸 : 죄인이 도망친다. 잡아라!
진국의 얼굴이 그려진 방이 벽에 붙어 있다.

자막 : 10개월 후.

#35. 회상 / 김판서집 마당 (밤)

솥을대문과 양반집 기와지붕이 보이고, 마당에 사대부 복장을 한 김판서(40대)가 안절부절못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한다.
산고의 비명소리가 연이어 들려온다.

#36. 회상 / 안방 (밤)

양반가 안방의 살림살이들이 갖춰져 있는데, 연희가 문고리에 연결된 무명천을 잡고 출산의 고통을 견디고 있다.
그 곁에는 50대 산파가 여인의 가랑이 앞에서 상황을 살핀다.
고통스러워하는 연희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있다.
연희 : 악, 악, 악!
산파 : 조금만 더, 더 힘을.....

#37. 회상 / 마당 (밤)

걱정스럽게 안방 쪽을 바라보는 김판서.
이때, 아기의 울음소리 들려오고 두 눈이 커지는 조 판서.

#38. 회상 / 대문 밖 (밤)

거지 차림의 사내가 주위를 의식하며 김판서의 집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바로 진국이다.
아이의 울음소리 들려오자 눈물 글썽거리는 진국.

#39. 회상 / 안방 (밤)

산파가 아이를 포대기에 싸는데 김판서가 들어선다.
산파 : (김판서 힐끔 보며 아쉬운 표정) 따, 따님입니다요.
김판서 : (굳은 표정으로 신음소리 내더니) 데리고 나가게.
산파가 아이를 안고 나가려하자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연희 : 애절한 눈빛) 얼굴이라도 한번.....(눈물 주르륵)
산파가 멈칫하며 표정을 살피니 김판서 고개를 끄덕한다.
아이를 옆에 뉘어주니 연희가 머리를 쓰다듬는다.
연희 : (슬픔이 뻗 목소리)우리 송이 예쁘구나. 흑흑흑.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산파와 굳은 표정의 김판서.
연희 : (애절한 표정으로 김판서 보며) 젖이라도 한번.....?
김판서가 눈짓하자 산파가 아이를 안고 나간다.
눈물 흘리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연희.
연희 : 송이야, 송이야! 흑흑흑.
연희 곁에 앉은 김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김판서 : 아이는 걱정 마시오.
연희 : (눈물만 흘린다).....
김판서 : 미안하오. 미안하오.
김판서 일어서서 나가고, 연희가 시선 돌리니 은장도가 놓여있다.

(며칠 후)

#40. 회상 / 묘지 (한양인근, 낮)

진국이 조금 전에 만든 듯 새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포졸들의 소리 들린다.
(E) 놈이다. 잡아라. 잡아라!
회상에서 깨어나는 진국.

(현실)

#41. 동굴 (소요산, 저녁)

눈물이 글썽해진 진국을 바라보는 송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송이 : 연희라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 아이도.....

진국 : (송이 찬찬히 보며 고개 끄덕)

송이 : 그래서 그 아이 생각에 저를 송이라?

진국 : (고개 끄덕).....

#42. 굴 밖 (밤)

북을 치며 흥얼거리는 송이의 소리가 들리는데, 달을 보며 연희를 떠올리는 진국.

진국 : (울컥하는) 송이가 저리 컸구려! 저리.....

(며칠 후)

#43. 계곡 (소요산, 낮)

큰 폭포 앞 느른 바위에 서서 판소리하는 진국을 열빠진 듯이 쳐다보는 송이. 잠시후. 진국이 소리를 마치자,

송이 : 저도 스승님처럼 되겠습니까?

진국 : (혼잣말) 애미 닮았으면.....

송이 : (고개 갸웃) 예에?

진국 : (당황) 아, 아니다. 아니야. 한 소절씩 따라해 보거라.

진국의 선창에 따라 소리를 하는 송이의 모습 흘러가고,

#44. 길거리 (한양, 김판서 집 앞, 밤)

초췌한 모습의 송민(20대)이 주위를 살피며 김판서의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데, 대문에는 출입을 금하는 표식이 붙어있다.

송민 : (눈물 글썽이며 혼잣말) 송이낭자? 흑흑흑.

회상에 젖는 송민.

(회상)

자막 : 몇 달 전.

#45. 회상 / 계곡 (한양인근, 낮)

작은 폭포가 뒤로 보이고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른다.

햇빛에 반사된 물줄기 반짝이고, 물위로 단풍잎 떨어져 흐른다.

귀티가 흐르는 외모를 한 송민(20대)이 대금을 연주하고 있고, 김송이(20세)는 흥얼거리며 장단을 맞추다 연주가 끝난다.

송민 : 낭자 생각하며 지어보긴 했는데어떻소?

송이 : 음률이 애절한 것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송민 : (쓱스러워 하더니 화제 바꾸려는 듯) 새봄에 매파 넣는다 하였으니 몇 달만 지나면.....

송이 : (고개 끄덕).....

#46. 회상 /김판서의 집 사랑채 (밤)

중인으로 보이는 40대의 사내가 들어와 절을 하고 앉는다.

김판서 : 어찌되어 가는가?

사 내 : 군사를 모아 훈련을 시키고 있으나 재물이 부족하여.....

김판서 : (잠시 생각더니 탁자에서 봉투를 꺼내어 주며) 경상의 어음이니 일단 이것으로 진행하라 이르게.

사내 봉투를 받아들고 물러난다.

#47. 회상 /송진사의 집 사랑채 (밤)

송진사 부부가 마주앉아 있다.

부 인 : 소문에 곧 서인이 득세할 것이라는 말이 도는데.....

송진사 : 권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소.

부 인 : (걱정스런 표정).....

송진사 : 김판서와 사돈이 되면 민이의 출셋길은 따 논 당상이오.

부 인 : 그 덕에서 우리와 선뜻 연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송진사 :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하오. 나는 재물이 있고, 김판서는 권세가 있으니 서로 득이 된다는 걸 그도 알 것이오.

이때 송민이 들어와 인사하고 앉는다.

송진사 : 그 규수를 만나고 오는 것이냐?

송민 : 예.

송진사 : 명문세가이니 학문이 부족하면 처신에 부끄러울 것이니라. 하니, 기악은 삼가하고 학문에 전념 하거라.

송민 : 예.

#48. 회상 /김판서의 집 사랑채 (밤)

물끄러미 송이를 살피보는 김판서.

김판서 : 니 어미를 많이 닮았구나.

송이 : 어떤 분이었습니까?

김판서 : (안타까운) 고운 사람이었다. 나를 만난 것이 화가되어.....

송이 : 어머니가 창을 잘하였습니까?

김판서 : (멈칫).....?

송이 : 다락에 북이 있기에.....

김판서 : 그, 그래. (눈을 감는다.)

송이 : (고개 갸웃).....

#49. 회상 /송민의 방 (밤)

방에 누워 송이를 그리워하는 송민.

#50. 송이의 방 (밤)

대금을 연주하는 송민을 회상하는 송이는 사랑에 푹 빠진 표정이다.

(며칠 후)

#51. 회상 /한양거리 (낮)

파발마가 급하게 달리더니, 곧이어 의금부 병사들이 골목길을 달린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내들.....

사내1 : 이제 동인들은 멸문지화가 되겠구먼.

사내2 : 순서가 그리 될 차례긴 하지.

사내1 : 허구한 날 파당을 지어 싸움질 할 때부터 알아봤지.

사내2 : 나라 꼬라지가 어찌 되련 지.....

사내1 : 서인들이 칼을 쥐었으니 생목숨 여럿 작살나겠네 그려.

사내2 : 그러게나 말일세. 쫓쫓.

자막 : 1589년 선조 22년 동인과 관련된 1,000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니 바로 기묘사화이다.

(며칠 후)

#52. 회상 /송진사집 마당 (낮)

안절부절못한 표정으로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송진사 부부.

마름인 이서방(40대)이 급히 들어온다.

송진사 : 어, 어찌되었느냐?

이서방 : 김판서는 궐에서 잡혀 참수 당하였고, 집안 가솔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되어 지방 관아로.....

송진사 : 그, 그럼 그 송이라는 규수도?

이서방 : 예. 삼남지방 어디로 끌려갔다는데 어딘지는.....

부인 : (걱정스런 표정)조금만 연관 있어도 다 잡아 간다는데.....

송진사 : (고심하는 표정 짓더니) 민이는 어디에 있소?

부인 : 송이낭자 행방을 알아보겠다면.....

송진사 : (잠시 생각더니) 부인은 들어가 계시오.

부인이 안채로 들어가자,

송진사 : 즉시 가솔들을 풀어 찾아오라 이러고, 자네는 민이 방으로 들게.

이서방 : (고개 갸웃).....

#53. 회상 /송민의 방 (낮)

마름 이서방이 사랑채로 들어서자 문 앞에서 기다리던 송진사가 칼을 휘두른다.

칼을 맞고 쓰러지는 이서방.

이서방 : (숨 헐떡이며) 나, 나으리?

송진사 : 미안하네. (다시 칼을 휘두르니 이서방 숨진다)

#54. 회상 /사랑채 (밤)

송진사 부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있는데 송민이 들어오자,

송진사 : (봉투를 내놓으며) 모든 가산을 정리한 돈이다.

송민 : (고개 갸웃).....

송진사 : 식솔들이 잠들면 한양을 떠나거라.

송민 :

송진사 : 혼담이 오갔으니 필시 그 화가 미칠 것이니라. 너는 7대 독자이니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송민 : 아, 아버님. 흑흑흑.

부인 :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거라. 별일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만나면 될 것이니.....

송진사 : 그리고 송이낭자도 참수를 당하였다 하니 찾을 필요 없다.

송민 : (놀란 눈) 그, 그것이 참, 참입니까?

송진사 : 그래, 내가 알아보았느니라.

송민 : (울먹이며) 낭, 낭자. 흑흑흑.

송민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간다.

(시간경과)

송진사의 집 송민의 방에 불이 난다.

가솔들이 불길을 잡으려 애쓰지만 더욱 세차게 타오른다.

(시간경과)

다음날 새벽.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당에 앉아있는 송진사와 부인.

하인 한명이 불더미 속을 뒤흔들며 오열한다.

하인 : 도, 도련님. 도련님! 흑흑흑.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오열하는데 한 무리의 의금부 포졸들이 들이닥친다.

종사관 : 대역죄인 송진사와 그 식솔들은 오라를 받으라.

송진사 : (멍한 표정으로 종사관 앞으로 오더니) 7대 독자를 잃고 무슨 닢으로 조상을.....

갑자기 종사관의 칼을 빼어 들더니 부인을 베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결한다.

갑작스런 일에 당황하는 표정의 종사관.

회상에서 깨어난 송민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현실)

#55. 계곡 (소요산, 낮)

진국이 너른바위 위에 북채를 잡고 앉아 송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지 북채로 북의 모서리를 연속으로 치며 창을 끊는다.

진국 : 그기는 옥에 갇힌 춘향이가 신세타령하며 이몽룡을 그리는 장면이니 슬프고 애절하게 불러야지. 계면조로.

송이가 목을 가다듬고 한 소절을 부르자 진국이 다시 세운다.

진국 : 소리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 온몸으로 내질러야 하느니라.

고개 끄덕 하며 송이가 다시 연습에 열중하는 모습 흘러간다.

#56. 폭포 (전주, 낮)

송이가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서 득음하기 위해 창하고 있지만, 물소리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자막 : 3 년후 가을.

#57. 어느 고을 (한양인근, 낮)

거지꼴을 한 송민이 잔칫집 마당에 앉아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는데, 옆자리의 두 선비 목소리가 들린다.

선비1 : 자네 명창 해월의 노래를 들어봤는가?

선비2 : 사람의 목에서 피꼬리 소리가 난다는 소문은 들었네.

송민 : (궁금한 표정) 피, 피꼬리?

선비2 : 한양사람이 아니시오?

송민 : 삼남을 유랑하다 한양 온지 얼마 안 되어.....

#58. 매향각 (동두천, 밤)

한 무리의 선비들이 기방에 둘러앉아 술판을 벌인다. 왹자지껄한 분위기~

선비1 : (옆의 기생에게) 명창 해월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선비2 : 그러게. 창 한번 들으려고 한양에서 왔거늘.....

기생1 : 소녀와 정답이나 나누며 기다리시면 올 겁니다요. 호호호.

선비1 : 음. 그럼 기다리기 지루하니 통해보거라.

기생1 : 하오시면 소녀부터.....

선비는 헛기침을 하더니 타령조로 희롱하듯 질문을 던진다.

선비1 : 이년아, 내가 명색이 무엇이나?

기생1 : 노류장화, 만인의 꽃 기생을시다.

선비1 : 허허, 네가 기생이라면 이름은 무엇이나?

기생1 : 옥단이라 하옵지요.

선비1 : 나이는 몇 살이나?

기생1 : 열하고도 여섯입지요

선비1 : 네년의 서방은 누구이나? 이름을 밝히 거라.

기생1 : 육봉이라는 자도 있고, 자지라는 자도 있고, 조옷이라는 자도 내 서방입지요.

선비1 : 서방이름 한번 고약하다. 내게도 그 이름이 있는데, 그럼 나도 네 서방이나?

기생1 : 성이 같고 이름이 같으니 어찌 내 서방이 아니리오.

기생이 손을 선비의 사타구니에 넣으며 타령조로,

기생1 : 아이고, 내 서방 여기 있었구려!

좌중은 폭소가 터진다.

(시간경과)

옆문이 열리는데 발이 쳐져있고, 발 너머에 송이가 서 있다.

송이 곁에는 북채를 잡은 진국이 있고, 좌중이 조용해지자 송이가 창을 한다.

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소리에 저마다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지른다.

선비1 : 과연 명창이라는 말이 헛되지 않았구나.

선비2 : 이제 너를 뛰어넘는 명창이 있다는 소문은 믿지 못하겠구나.

(며칠 후)

#59. 양주 인근 산골 (낮)

거지 물골을 한 송민이 콧소리 흥얼거리며 산길을 걷는다.

소변이 마려운지 나무 뒤로 가서 볼일을 보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살펴보니

협객 행색의 30대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 죄인들을 쫓는 ‘박일도’ 다.

송민 : (흔들며) 이보시오. 이보시오.

#60. 동굴 (저녁)

모닥불이 지펴져있고, ‘박일도’가 뉘어져 있다.

송민이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옷깃을 찢어 상처를 싸맨다.

움짚하며 깨어나는 박일도.

송민 : 정, 정신이 좀 드시오?

박일도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주변을 살핀다. 일어나려 하다 통증을 느끼는 표정.

송민 : 아직은 움직이지 마시오. 겨우 지혈하였으니.....

박일도 : 고, 고맙소.

(시간경과)

송민 : 차림을 보아하니 예사 분은 아닌 듯 한데.....

박일도 :(불편한 심기)

송민 : 아, 곤란하시면 말하지 않아도 되오.

박일도 : 헌데 선비께서는 어디로?

송민 : 동두천으로 가는 길이라오.

박일도 :?

송민 : 천하 명창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하하하.

박일도 : 행색을 보니.....

송민 : 반 거지나 다름없다 이 말ियो? 하하하.

박일도 : (미소 지으며 고개 끄덕).....

송민 : 이 몰골로 기방에 들 수는 없겠지만 혹, 아오, 먼발치에서라도 노랫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 지.

박일도 : 풍류를 즐기시나 봅니다?

송민 : 휴~ 즐기고 싶어 즐기는 게 아니라..... 음....

박일도 :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송민 : 옳은 말ियो. 뜻대로 되었다면.....

송민은 송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운 표정을 짓는다.

송민 : 그쪽 이야기나 함 해보시오. 처자는 없소?

박일도 : 혼인한 적이 없으니.....

송민 : 그럼 사모하였던 여인은?

박일도 :(회상하는 표정) 있었지요. 말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양반집 규수였고, 저는 그 집의 머슴이었지요.

오랫동안 사모하였지만 아무런 내색도 못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이웃고을에 시집을 갔었지요.

송민 : 쫓쫓. 말이라도 하시지.....

박일도 :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묘사화 때 멸문지화를.....

송민 : 그, 그럼 그 여인은?

박일도 : 제가 손을 써서 어느 사찰에 모셨는데.....

송민 : 스님이 되었다?

박일도 : 예.

송민 : 그 여인은 알고 있소, 그쪽의 마음을.....

박일도 : 목숨을 걸고 구했으니 아마도.....

송민 : 아마도 그 여인은 기다리고 있을 것ियो. 마음을 표해주기를.....

박일도 : (고개 갸웃).....

송민 : 말을 해야 하오. 물어두면 두 가슴이 문드러진다오.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 되는 법이오.

박일도 : (혼잣말처럼)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 된다!

(며칠 후)

#61. 산중 갈래길 (낮)

수일 후 완쾌한 듯 보이는 박일도가 갈림길에서 서로 작별을 한다.

박일도 : 보답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소만.....

송민 : 마음에 두지 마시오.

박일도 : 그럼.....

서로 목례를 하고 서로의 길로 떠나는 두 사람.

#62. 어느 정자. (동두천, 낮)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정자위에 선비들과 기생들이 어울려 판을 벌였다.

느릿느릿 걸음으로 정자에 다다른 송민.

송민 : 지나는 객이 온데 목 좀 축여주소.

선비1 : (살피더니) 선비에게 말 거는 것을 보니 양반인 듯 한데 술을 주면 그대는 무엇을 주시겠소?

송민 : 보시다시피 상 거지꼴이나 대금을 좀 봅니다.

송민이 대금을 연주하니 모두들 감탄한 얼굴이 된다.

선비2 : (잠시 살펴보니) 오늘 우리들의 귀가 호사를 누렸소. 어서 올라 한잔하십시오.

정자에 올라 기생 옆에 앉더니 코를 벌렁거리며

송민 : 아파 술 냄새도 좋고 계집 냄새도 좋다~ 하하하.

선비1 : (살펴보더니) 가만 보니 선비는 풍류객이로세.

송민 : 침어낙안 폐월수화와 노니는 여러분들이 풍류객이지요. 혹, 해월이라는 기생을 본적이 있소.

선비1 :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요. 발을 쳐놓고 노래만 부르니.....

송민 : 노래만?

선비2 : 양반가의 여식이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얼굴이 홍하여 그렇다는 말도 있소.

선비1 : 얼굴 없는 명창이라 이름이 더 높아진 것이기도 하고..... 왜, 궁금하시오?

송민 : 하도 소문이 자자하여.....

(며칠 후)

#63. 저잣거리 (동두천, 저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송민.

송민 :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매, 매향각이 어디요?

행인 : (아래위를 살피더니) 해월의 소리 들으러 왔수?

송민 : 그렇소만?

행인 : 정신없는 양반이구만. 돈 싸들고 줄을 서도 시원찮을 판에 이 꼴을 해가지고.....

송민 : (점연쩍은 표정).....

행인 : 저기 저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두 번 돌면 있을거요.

#64. 매향각 앞 (저녁)

문 앞에 건장한 사내가 지키고 있고, 선비들이 그 근처에서 기웃거린다.

문지기 : 오늘은 자리가 없으니 돌아들 가십시오.

선비1 : 아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삼일 째 들락거리는데.....

문지기 : 열흘 기다린 선비님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만들

선비2 : 벼슬 높은 작자들이 끼어드니 순서가 오겠는가. 그만 돌아 가세나.

선비1 : 죽기 전에는 들을 수 있을는지. 쯤~

송민이 문 앞으로 가까이 가자 문지기가 인상을 쓰니, 지나가는 행인처럼 행동하며 골목을 돌아가고.....

(시간경과)

#65. 골목길 (새벽녘)

술 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매향각에서 나와 골목으로 사라지고, 잠시 후 장옷을 걸친 기생 해월(송이)와 진국의 모습이 보인다.

송민은 행인처럼 지나치며 힐끗 기생을 살펴보는데 눈이 마주친다.

그 순간 송민은 멈칫하며 걸음을 멈춘다.

장옷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바로 송이의 눈이기 때문이다.

골목으로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송민.

#66. 산길 (새벽)

송민이 뒤를 밟는데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가는 송이와 진국.

산길을 올라 굴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67. 굴속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다.

송이 : 스승님, 웬 사내가 미행을.....

진국 : (고개 끄덕).....

송이 : 난봉꾼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진국 : 두고 보면 알겠지. 얼굴 보려는 자가 한둘이 아니니.....

송이 : (걱정스런 표정) 이곳이 알려지면.....

진국 : 음.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시간경과)

#68. 숲 (저녁)

숲에 숨어 동굴을 살피던 송민이 꾸벅꾸벅 졸다가
섬뜩한 느낌에 눈을 뜨니 목에 칼이 겨누어져 있다.

송민 : (놀라며) 왜, 왜 이러시오?

진국이 칼등으로 뒷목을 치니 송민은 기절한다.

(시간경과)

송민이 인기척을 느끼며 눈을 뜨니 이미 한 밤중이다.

진국이 요깃거리를 내밀며,

진국 : 흥한 자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로 그쳤으니, 날 밝으면 떠나시오.

송민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진국.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뭘 생각이 난 듯 대금을 꺼내어 든다.

#69. 동굴 안 (밤)

진국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송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이때 대금소리가 들려온다.

진국 : (일어서며) 저놈이

송이 : (급하게 제지하며) 스, 스승님, 잠시만.....

송이의 표정을 살피는 진국.

송이는 뭘까뭘까?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안타까운 표정.

송이 : 어디서, 어디서 들어본 가락인데..... (머리 아파하는 표정)

진국 : (눈 멀뚱)

송이는 뭘가 생각해 내려는 듯 인상을 쓰더니 머리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른다.

송이 : 악~~~!

진국 : (깜짝 놀라며) 왜, 왜 그러느냐?

송이 : 머, 머리가 깨질듯

송이는 잠깐 혼절하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든다.

이때까지도 대금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곰곰이 생각에 빠져있던 진국이 동굴을 나선다.

#70. 굴 밖 (밤)

여전히 대금을 붙고 있는 송민.

진국 : 그 음률은 어디에서 익힌 것이오?

송민 : 제가 지은 것입니다. 현대 왜?

진국 :자네 이름이 뭐가?

송민 : 송민입니다 만,

진국 : 송진사택 송민?

깜짝 놀라며 회상에 젖는 진국.

(회상)

자막 : 20년 전

#71. 회상 / 한양인근 저잣거리 (낮)

포졸들이 뛰어다니고, 여러 사람들이 오랏줄에 묶여 압송중이다.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40대의 진국.

사내1 : 서인들은 다 잡아 죽인다고 하네.

사내2 : 그게 뭘 죄가 되기에?

사내1 : 야, 이 사람아. 역모라잖은가. 역모. 역모면 삼죽이..... 세도가 김판서 집안도 쑥대밭이.....

진국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급히 달린다.

#72. 회상 / 김판서의 집 앞 (낮)

김판서의 집 앞에 도착한 진국.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아낙1 : 혼사 며칠 앞두고 쫓쫓.

아낙2 : 김판서는 참수당하고 송이아가씨는 관노로 끌려갔다는데.....

아낙3 : 혼담 오갔던 송진사 집안도 쑥대밭이.....

회상에서 깨어난 진국이 송민을 뺨히 쳐다본다.

(현실)

#73. 굴 밖 (밤)

진국 : 흠, 김송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가?

송민 : (눈 크게 뜨고) 송이낭자. 김판서의 무남독녀 말입니까?

진국 : (놀라는 표정) 그럼 자네가 송진사의 7대독자?

송민 : (고개 끄덕).....

이제까지의 일을 이야기 하는 진국.

진국 : 기억을 잃고, 무료하게 있는 것 보다는 좋을 것 같아 소리를 가르쳤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나가 노래를 불러 보고 싶다 하여 매향각에 나가게 되었지. 얼굴을 들어내지 않는 조건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이 퍼지고..... 내가 생부인 것도 모른다네.

송민 : (고개 끄덕) 빨리 낭자를.....

#74. 동굴 (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송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진국과 송민.

송민 : (눈물 주르르)

송민이 옛일을 생각하며 대금을 애절하게 부니 불 위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송이는 그 소리에 꿈결인 듯 생시인 듯 옛 기억을 되찾아가고 잠시 후에 모든 기억을 되찾는다.

송이는 눈을 감고 있으나 송민의 대금 소리임을 알고 차마 꿈일까 하는 걱정 때문에 눈도 못 뜨고 눈물만 흘린다. 가늘게 흐느끼면서.....

송이의 눈물을 본 송민도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며칠 후)

#75. 계곡 (낮)

계곡물이 보이는 널따란 바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는 송민과 그 음률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송이. 두 사람의 시선엔 사랑이 가득하고 음률은 경쾌하다.

#76. 동굴 밖 (낮)

진국이 양지바른 곳에 앉아 북을 손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일도가 나타나 칼을 겨누고, 진국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비교한다.

박일도 : (알긋은 미소) 이제야 찾았구만.

진국 : (눈치를 살핀다)

박일도 : 허튼짓 않는 게 좋을꺼유. 목짚라 가기는 끔찍하니. 하하하.

순간, 박일도가 목을 겨누는 칼을 북채로 치고 장검을 찾아 뽑는다.

두 사람의 결투가 시작되고, 검에서 불이 번쩍인다.

힘과 기에서 밀리는 진국이 박일도의 발에 차여 나뒹군다.

다시 목에 칼을 겨누는 박일도의 귀에 송이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박일도 : 해월로 숨어사는 년까지 잡게 되었으니 소득이 좋구만.

#77. 계곡 (낮)

두 사람의 연주와 노래는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새 그들에게 다가간 박일도.

칼을 뽑으려다 송민과 눈이 마주치고 순간적으로 칼을 숨기고 바라만 본다.

송민은 박일도가 추격꾼임을 이미 알고, 눈짓으로 기다려 달라고 하니 박일도가 고개를 끄덕인다.

노래가 끝나고 송민의 표정이 굳어지니 박일도는 걱정 말라는 표정으로,

박일도 : (변갈아 보더니) 참으로 잘 들었소.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가더니,

박일도 : 어떤 선비분이 그랬지요. 사랑이라 말하니 사랑이더라! 저도 이제 그리 말해야겠습니
다. 어느 여인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말이요.

(머칠 후)

#78. 굴 밖 (아침)

송민은 거문고를 연주하고, 송이는 창을 하는데 눈빛에 사랑이 가득하다.

그 곁에 흐뭇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는 진국.

소요산의 풍경과 함께 자막 올라간다.

“이후 김송이와 송민이 머물렀다 하여 이굴을 금송굴이라 하였다.”